

필요한 곳 찾아가 안전서비스 활동

농·식품 수출상담회 개최

도, '오지마을 재안안전 점검수리반 출범식' ... 진안군 정주마을 51세대 시설 점검·홍보

전북도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6개 관련기관이 취약계층을 위한 민관합동 '찾아가는 안전서비스' 활동을 개시했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진안군 정주마을회관에서 김일재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6개 관련 기관장, 점검수리반, 마을주민 및 봉사단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지마을 재안안전 점검수리반' 출범식을 개최했다.

올해 첫 활동을 펼친 이날 행사에서는 안전전북 구현을 다짐하는 출범식

에 이어 전기, 가스, 보일러 분야 전문가 18명과 공무원들이 진안군 정주마을 51세대 전역을 돌며 철저한 시설 점검과 함께 재난 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전북도는 이번 진안군 진안을 정주마을을 시작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안전서비스' 활동을 본격 추진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안전 서비스'는 주거 기초 환경이 열악해 각종 생활안전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

는 농·어촌 및 도시 저소득 밀집 지역 마을에 재안안전 점검수리반이 직접 출동해 전기, 가스, 보일러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을 무료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도와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1997년에 취약가구 127세대를 선정해 시행한 이후 약 20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대표적인 민관 협업 차원의 안전복지 사업으로 손꼽힌다.

올해도 전북도는 안전복지강화 차원에서 서비스 대상 마을을 4개로 정하고, 재난취약 정도와 지역별 안배

등을 고려해 진안군 진안을 정주마을, 남원시 송동면 동양마을, 고창군 성내면 교동 마을, 원주군 상관면 마수대 마을을 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

전북도는 재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안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나갈 계획이다.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오늘 출범식을 계기로 안전전북 구현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면서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안전서비스 확대를 통해 재난 안전지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도, 11개국 25명 우수 바이어 초청 50여 업체와 1:1 상담

전북 농수산물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 전북도가 우수 농·식품 바이어를 초청해 1:1 수출상담회를 운영한다.

전북도에 따르면 18일부터 19일까지 전주리조트호텔에서 도내 농수산물 수출 길 확보를 위한 해외 우수바이어 초청상담회를 전북도와 전북 KOTRA지원단, 전북생물산업진흥원이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상담회는 콜롬비아 최대 식품유통사인 Alival社와 미국 중견 유통사인 Han Partners社 등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브라질 등 총 11개국 25명의 우수바이어를 엄선해 전북으로 유치하고 도내 농수산물 기업들에게 해외 판로 개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상담회는 도내 농수산물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와 희망품목 매칭을 통해 고창의 참다랭이조합밥인 등 50여 업체를 선정해 1:1 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상황에 따라 공장 방문 등 추가 협상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상담회에 참석한 미국 Food Buzzant의 스펜서 안 대표는 "우수한 품질과 안전성이 보장되는 농수산물품을 찾고 있어 전라북도 상품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이번 상담회를

계기로 신규 거래선 확보는 물론 거래가 확대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북도와 생진원은 도내 농수산물 수출활성화를 위해 올해 내에 총 40회회 이상의 상시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바이어 요구에 맞는 도내 생산 농수산물품을 적극적으로 연결해 최대한 많은 업체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 농수산물품의 해외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상담회와 우수바이어 발굴 및 현지 특별 판촉행사 개최 등 다양한 해외 시장 개척 활동을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농협은 올해 배, 파프리카, 화훼 등 기존의 효자 품목과 더불어 양파, 토마토, 멜론 등 수출 유망품목을 집중 발굴해 일본, 대만 등 주요 국가에 수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강태호 본부장은 "미국 트럼프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과의 외교문제, 장기화된 일본의 엔저 등 대내외 악재를 이겨내고 농산물 3000만달러 수출로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새마을의 날 기념식 개최

새마을운동 제47주년 '새마을의 날 기념식'이 17일 부안 모항 해나루 가족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송하진 지사와 전북도 새마을회 박명자 회장 및 임직원, 시·군 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 및 기념사, 축사, 우리의 결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또한 기념식 및 도 및 시·군 새마을회 임원단 워크숍을 통해 새마을운동에 대한 범도민적 이해와 실천의지를 다지는 한편 시·군별 새마을사업 추진의 우수사례 공유 및 공동체 운동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갈등해소와 국민통합에 기여하기로 했다.

특히 줄어만 가는 인구를 한 명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 새마을 조직이 중심이 돼 한 자너 더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전북 북 찾가에도 적극 앞장서기로 다짐했다. /인재용 기자



17일 부안 모항 해나루 가족호텔에서는 송하진 도지사와 전라북도 새마을회 박명자 회장 및 임직원, 시·군 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7주년 새마을의 날 기념식 및 도 및 시·군 새마을회 임원단 워크숍 행사를 가졌다.

벼 직파재배 현장 연시회 개최

전북농업기술원과 전북농협은 17일 김제시 만경읍에서 농업인 및 관계기관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벼 직파재배 현장 연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벼 직파기술 소개, 직파농기계 및 관련 농자재 전시, 파종 시연이 함께 진행됐다.

농촌 일손부족 해소와 농업 생산비 절감을 위해 전북농협은 올해 16개 농협과 농업인이 직파재배에 참여해 500ha이상의 면적에 직파 파종을 계획 중이며 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인재용 기자

'한빛원전 방사능방재 주민보호훈련' 실시 전북도-고창군

전북도와 고창군은 17일 고창 청소년수련관에서 규모 7.1 지진 발생으로 한빛원전력발전소 2호기 원자로 자동정지에 따른 방사능 누출 등의 비상상황을 가정해 '한빛원전 방사능방재 주민보호훈련'을 실시했다.

방사능방재 주민보호훈련은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 내 지자체 주관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도, 고창군,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창경찰서, 고창소방서 등

12개 기관과 공음초, 상하초, 해리중, 해리면 주민 등 총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훈련에서는 한빛 2호기 원자로 자동정지 발생에 따른 비상상황 접수, 고창군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발족, 방사선 비상상황 전파, 주민보호홍용 갑상선 방호약품 배부 및 주민보호소(疎開), 주민대피구호소 및 방사선 비상진료소 운영 등으로 도상훈련과 실제훈련을 병행해 추진했다.

또한, 학생 및 주민들이 대피한 구호소에서 방사능방재에 대한교육, 방

사선 비상 시 주민행동요령, 개인방호용품 착용법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했다.

이현용 도민안전실장은 "작년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과 최근까지 지속되는 여진 등 원전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확대됨에 따라 방사능 재난 관련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실제와 같은 훈련을 통해 개선점을 도출해 매뉴얼 보완 및 향후 훈련 시 반영하는 등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김일재 행정부지사, 원연장 꽃잔디마을 현장점검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17일 진안 원연장 꽃잔디마을을 방문해 원연 체험관, 꽃잔디동산, 꽃잔디식당을 둘러보고 주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면서 삼락농정, 생생마을 만들기 추진성과를 점검했다.

꽃잔디 마을로 알려진 진안 원연장마을은 신애수 추진위원장을 중심으로 작은 일이라도 모든 주민이 함께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단계별로 주민역량에 맞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지난해 방문객 4만명, 매출 2억6,000만원의 성과를 올렸다. /인재용 기자

또한 활발한 마을분위기로 5세대 10명이 귀농해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는 마을로 삼락농정을 실천하는 대표적인 생생마을이다.

김 부지사는 이날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원연장마을은 생생마을 만들기 추진전략의 대표적인 모델"이라며, 주민들의 의욕과 노력이 사업성공의 제1원칙임을 강조했다.

김 부지사는 도내 곳곳에서 생생마을 만들기 추진성과가 가시화됨에 따라 앞으로 지속적인 현장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재용 기자

어린참게 18만 마리 방류 도 민물고기시험장

전북 수산기술연구소 민물고기시험장에서 내수면 자연 생태계 복원 및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17일과 30일, 어린 참게 18만마리를 도내 4개 시·군 하천 및 저수지 등에 방류한다.

이번 방류하는 어린참게는 3월에 구입한 어미참게에서 산란시켜 유생단계를 거쳐 갑폭 0.7cm 크기의 치게로 성장시킨 후 질병검사를 마친 건강한 유량 품종이다. /인재용 기자

참게는 가을철 산란을 위해 바다로 이동해 월동하고, 이듬해 연안바다에서 산란해 부화한 유생이 민물로 다시 올라와 성장한다.

특유의 향과 고소한 맛을 가진 참게는 필수 아미노산이 비교적 고르게 함유돼 있어 발육기의 어린이나 노약자에게 좋으며, 키토산의 함량이 풍부해 생체기능 조절 및 노화 방지에 뛰어난 효능이 있다. /인재용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